

시마바라반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리플릿: 사람들의 생활과 전투

시마바라반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래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났습니다. 반도 북쪽에 있는 유적을 따라가는 이 길은 역사와 지리의 관계를 보여줍니다.

야마다 성터 공원

1372년에 강대한 세력을 가진 다와라 우지요시가 시마바라반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강의 흐름으로 생긴 언덕을 이용해 이곳에 성을 쌓았습니다. 그 후 야마다씨의 거성이 되었다가 1614년에 주군 아리마씨가 영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야마다씨도 노부오카로 옮겨갔기 때문에 폐성되었습니다. 이 반도의 비옥한 농지를 둘러싼 다툼은 1638년 시마바라·아마쿠사 잇키까지 계속되었습니다.

모리야마오쓰카 고분

약 300년부터 540년까지 고대 일본에서는 ‘고분(古墳)’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고분은 나가사키현 내에서 최대급 크기를 자랑하는데, 후원부 직경은 약 45미터, 전체길이는 70미터, 후원부 중앙의 높이는 약 7미터입니다.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지인들은 고분 위에 묘지를 쌓아왔습니다.

운젠시 역사자료관 / 구니미 전시관

과거 중학교였던 목조교사를 개수하여 약 3만 년 전 석기부터 쇼와시대 유리제품까지 시마바라반도에서 발굴된 유적 출토품을 전시하는 자료관으로 만든 곳입니다.

오키타나와테 고전장터

전국시대(1467년-1568년)에는 일본 전역의 무가들이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1584년 아리마씨와 시마즈씨 연합군이 겨우 8천의 군사로 류조지씨의 강력한 5만 군세를 물리쳤습니다. 당시의 오키타나와테는 가슴까지 잠길 정도의 습지대였는데, 그 안에는 좁은 외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. 아리마씨와 시마즈씨는 지형을 잘 이용하여 외길로 류조지의 대군을 유인했고, 혼란에 빠뜨려 단번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